

MONTHLY REPORT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1.6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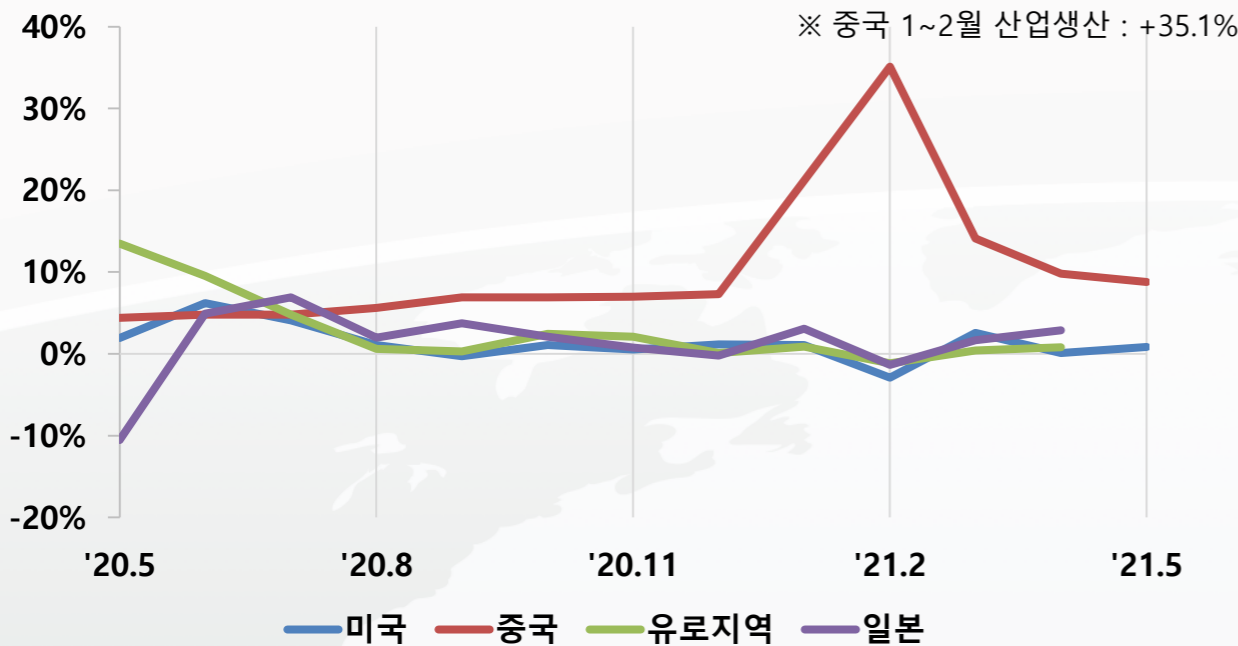
 Korea Eximbank
WE FINANCE GLOBAL KOREA

세계 경제동향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코로나19 확산세 및 대응 정책 차이 등으로 상이한 회복 양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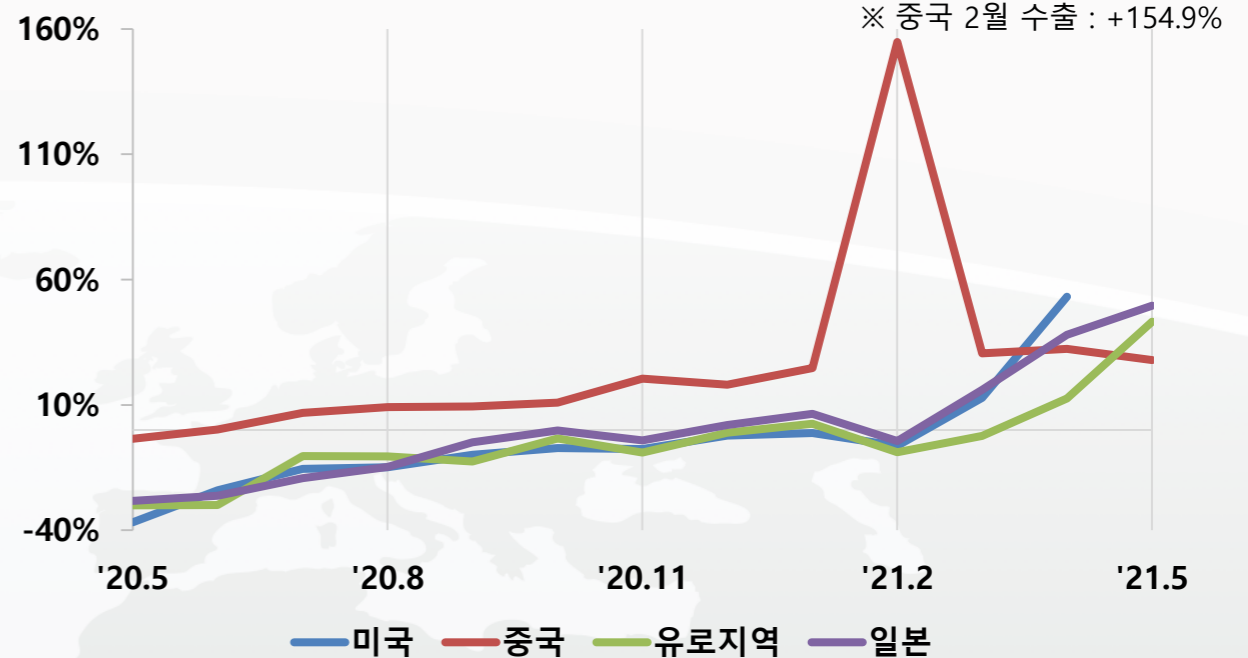
- (미 국) 대규모 경기부양책·백신접종 확대 등에 따라 생산·소비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
 - 5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0.8%)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는 한편, 5월 소매판매(전월 대비 △1.3%)는 전년동월 대비 큰 폭 증가(+27.7%)
- (중 국) 생산, 수출 및 소비 등 경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 지속
 - 5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8.8%) 및 수출(전년동월 대비 +27.9%)은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으며, 소매판매(전년동월 대비 +12.4%)도 큰 폭 증가
- (유로존) 백신접종 확대 및 봉쇄조치 완화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감
 - 4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0.8%)은 소폭 증가, 수출(전년동월 대비 +43.2%)은 큰 폭 증가한 가운데, 5월 서비스업 PMI(55.2)는 '18.7월 이후 최고치 기록
- (일 본) 방역조치 강화(4월 말, 도쿄 등 4개 지역 긴급사태 발령) 등 내수 부진 속 수출 큰 폭 개선
 - 4월 소매판매(전월 대비 △4.6%) 및 가계소비(△0.6%) 감소 전환하였으나, 5월 수출(전년동월 대비 +49.6%)은 상승폭이 큰 폭으로 확대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 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 자료 : Bloomberg

국내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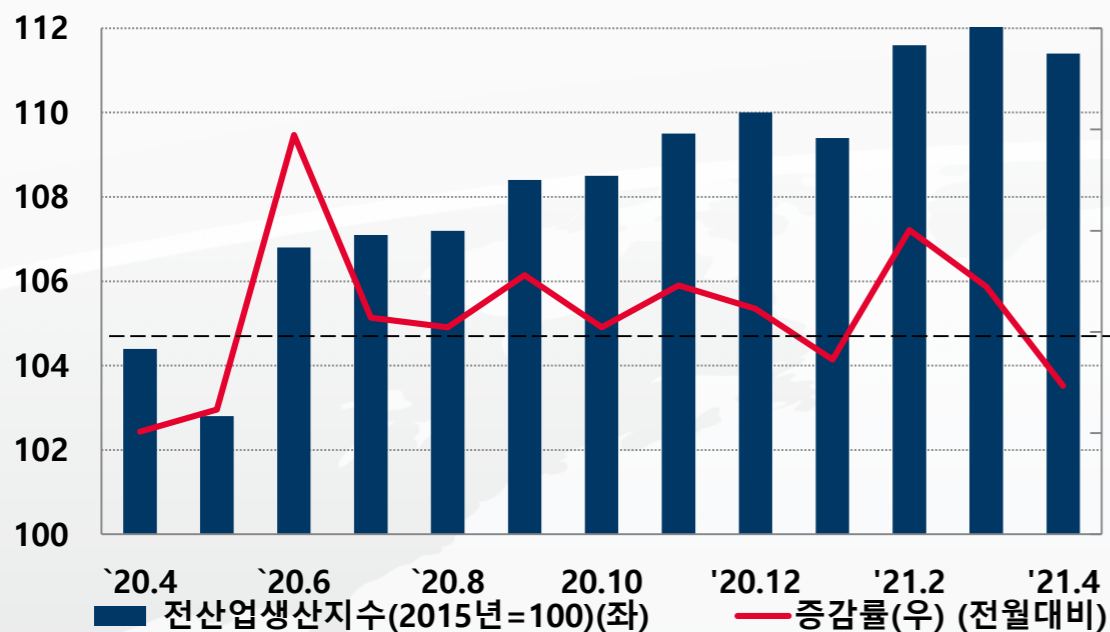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반도체 기저효과 등으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

- (생산) 4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증가에도 불구하고, 광공업 생산 감소 전환으로 전월 대비 1.1% 감소
 - (광공업 : $\Delta 1.6\%$) : 높은 상승세를 이어온 반도체($\Delta 10.9\%$)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조정되며 전월 대비 감소
 - (서비스업 : $+0.4\%$) :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 등으로 숙박·음식점($+3.1\%$), 예술·스포츠·여가($+3.2\%$)가 늘며 전월 대비 증가
- (경기) 4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103.6p)는 11개월 연속 상승하며 '10.1월 이후 최장기간 증가 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주력 품목 선전 및 기저효과 등으로 32년 만에 최대 폭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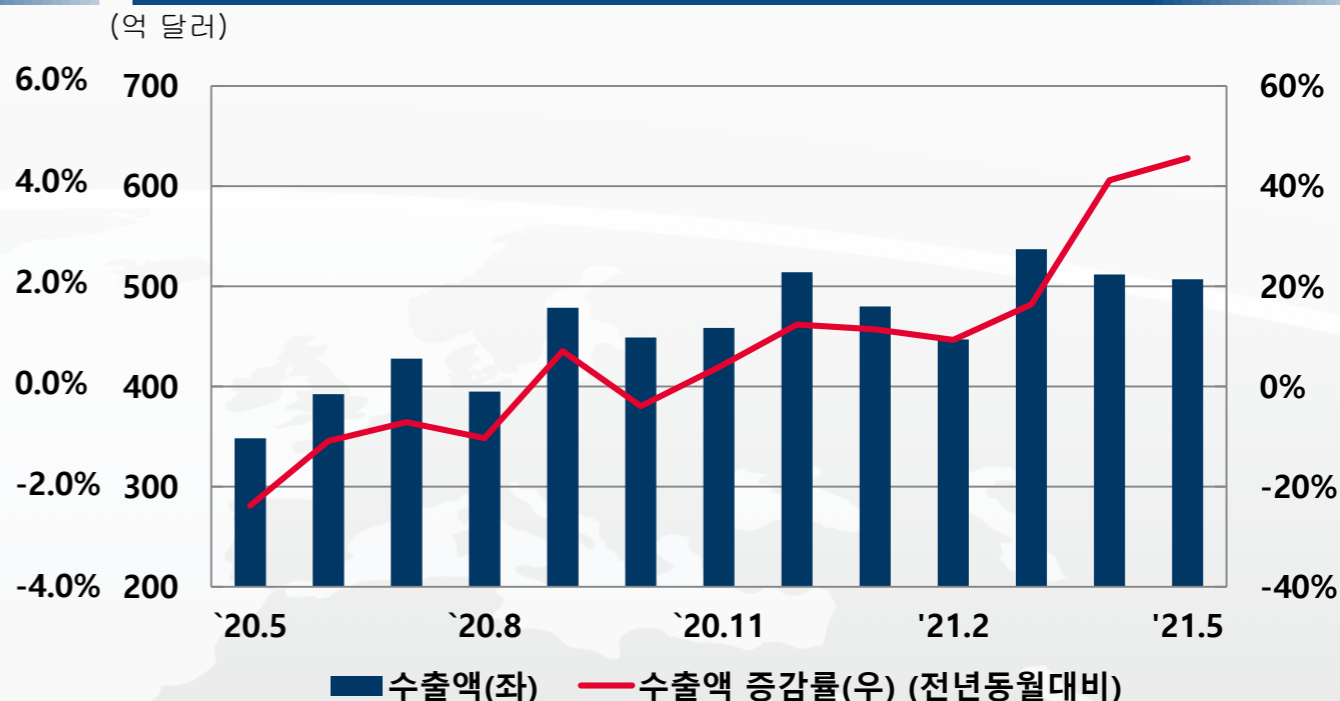
- 5월 총수출은 507.3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$+45.6\%$)로,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월의 상승세를 이어감
 - 美($+62.8\%$) · EU($+62.8\%$) · 中($+22.7\%$) 등 9대 주요 수출 지역으로의 수출이 전월에 이어 모두 증가
 - 15대 품목 중 선박($\Delta 14.9\%$)을 제외하고, 자동차부품($+182.3\%$), 석유제품($+164.1\%$) 등 14개 품목이 증가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■ 금리 동향 :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 등으로 단기변동성 확대

- (미국) 장기금리가 6월 초까지 하향 안정화 추세였으나, FOMC 회의(6.16) 이후 다소 매파*적인 발언 등으로 상당폭 등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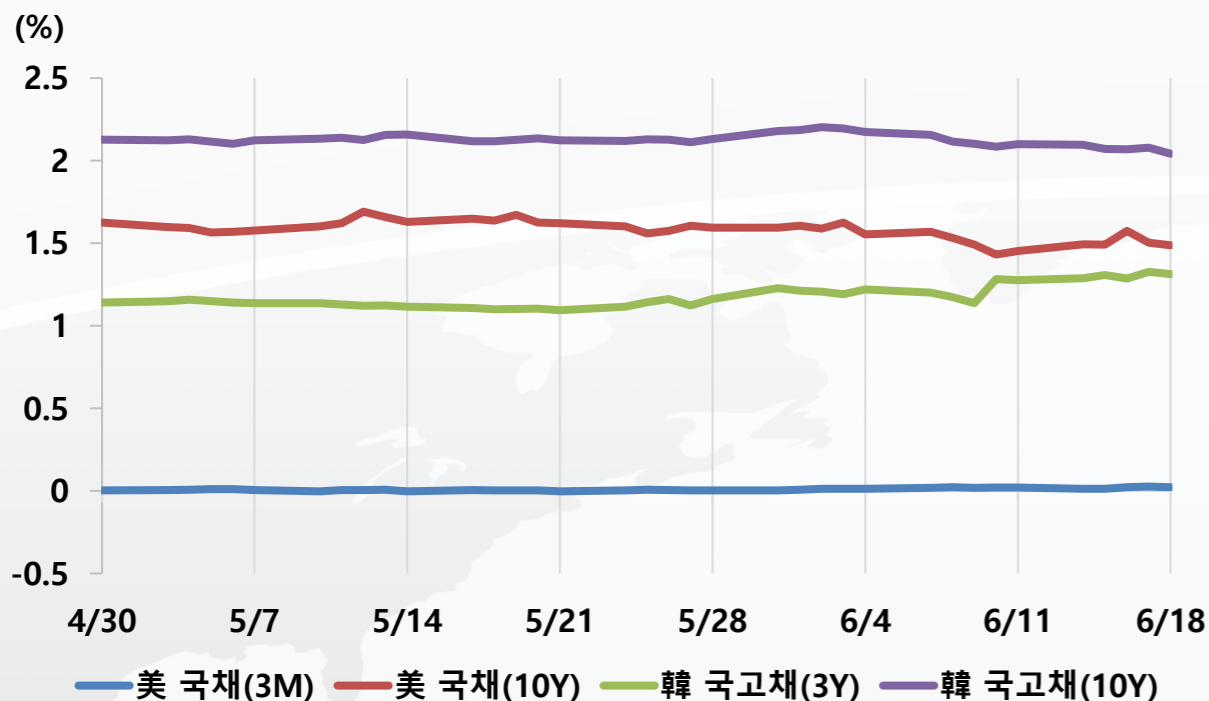
*'22년 금리인상 예상 연준위원 증가(4명→7명) 및 '23년 금리 점도표 중간값 0.5%p 상승(0.1%→0.6%) 등

- (한국) 글로벌 금리 안정화 속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수급 우려가 일부 해소(추가 세수 예상 등)되며 장기금리 하향 지속

■ 환율 동향 : 미 달러화, 주요 지표(PMI, 고용 등) 개선 등으로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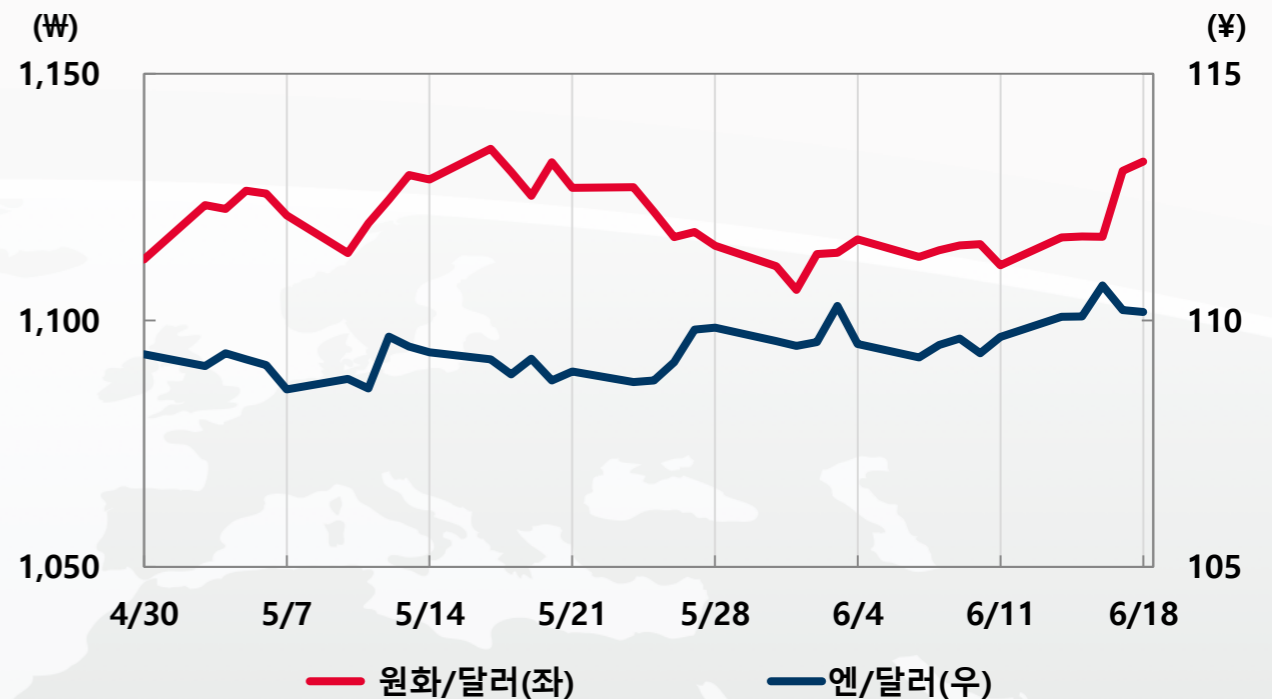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수입업체의 결제수요 유입 등 외환수요 우위 여건 속 美 국채금리 일시적 반등 등으로 1,130원대로 급등
- (엔/달러 환율) 일본 장기금리 안정에 따른 미·일 금리차 확대 등으로 엔화 약보합세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금융투자협회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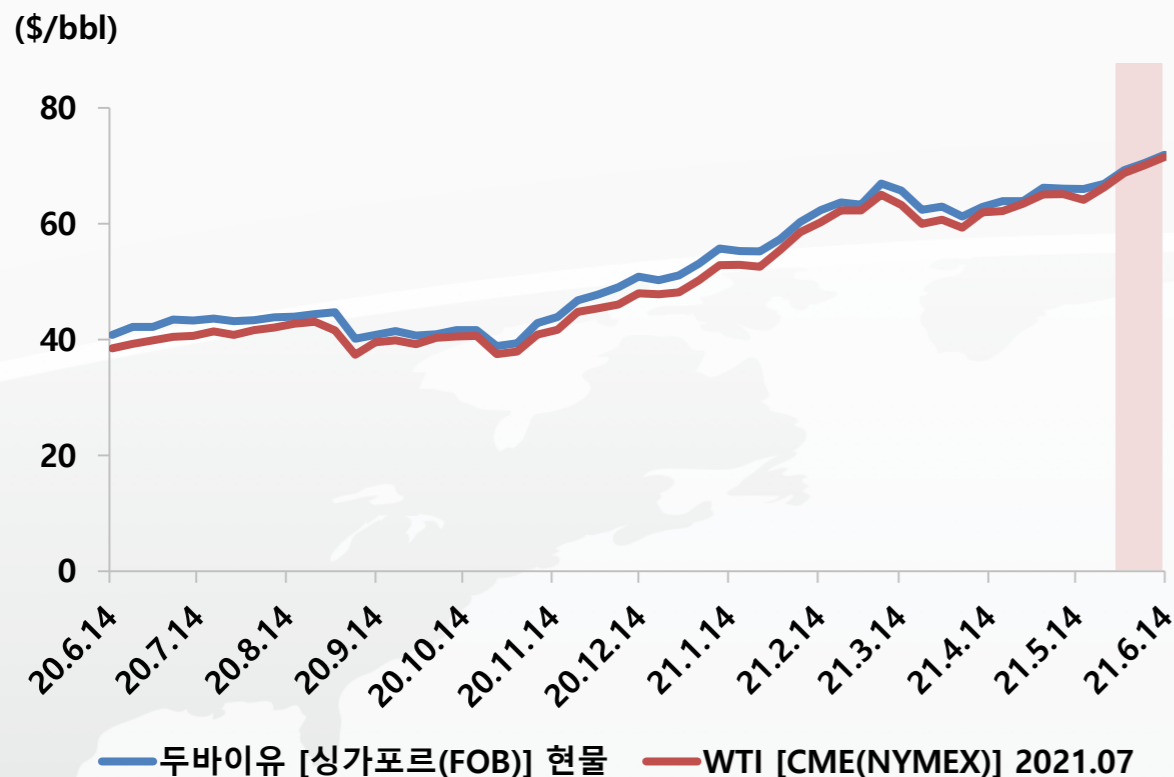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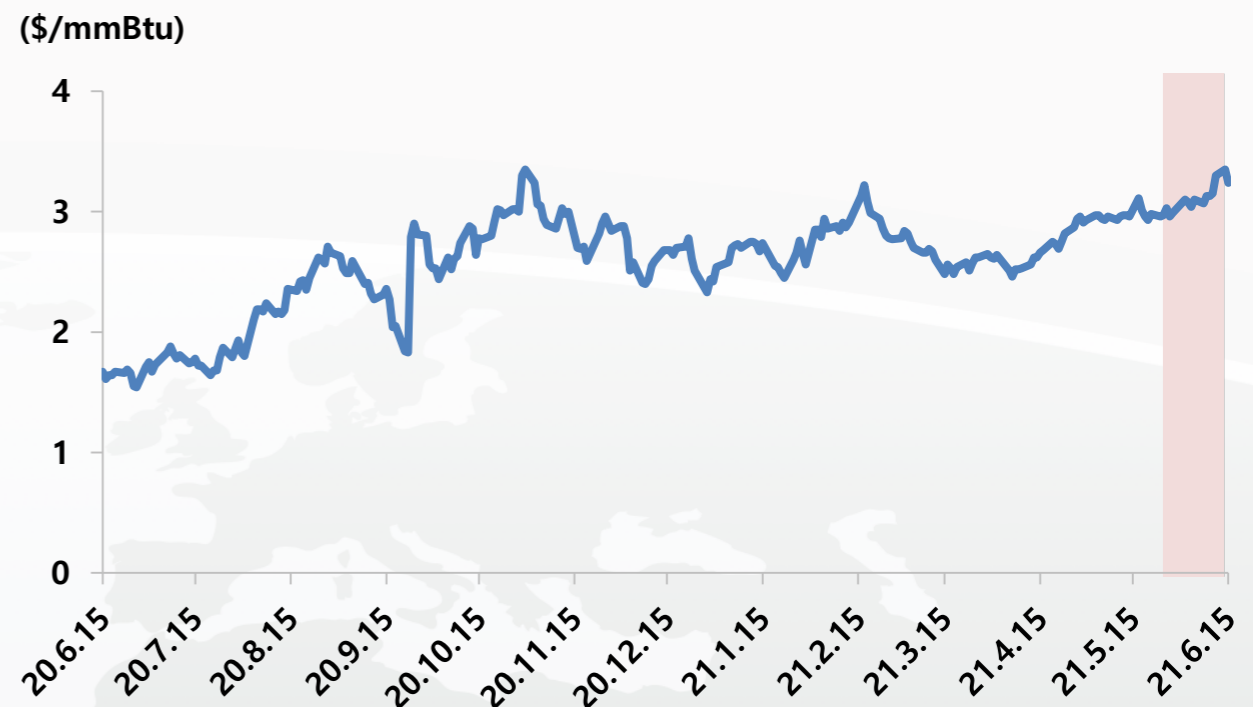
■ 6월 중 수요회복 기대감 등으로 유가 상승세, 천연가스도 냉방용 수요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

- (유가) 백신접종률 향상에 따른 이동제한 완화 등 석유수요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, 이란 제재 완화 기대감 약화 등으로 5월말 이후 유가 상승세 지속, 6월 들어 배럴당 70달러대 돌파
 - 이란 대선(6.18) 보수·강경파 후보인 에브라임 라이시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며 미국과의 핵협상 의구심 제기, 미국 원유재고의 4주 연속 감소세 전망 등으로 유가 상승세 지속(6.15일, 두바이유 \$71.79/bbl)
- (천연가스 가격) 냉방용 수요 증가 및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상승, 6월중순 mmBtu당 3달러 초반대 기록
 - 미국의 텍사스 및 캘리포니아 지역의 전력 사용이 역대 6월 사용량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, 여름철 냉방용 수요증가 기대감으로 6월 중순 천연가스 가격이 7개월래 최고치 기록(6.14일, NYMEX \$3.35/bbl)

국제유가 추이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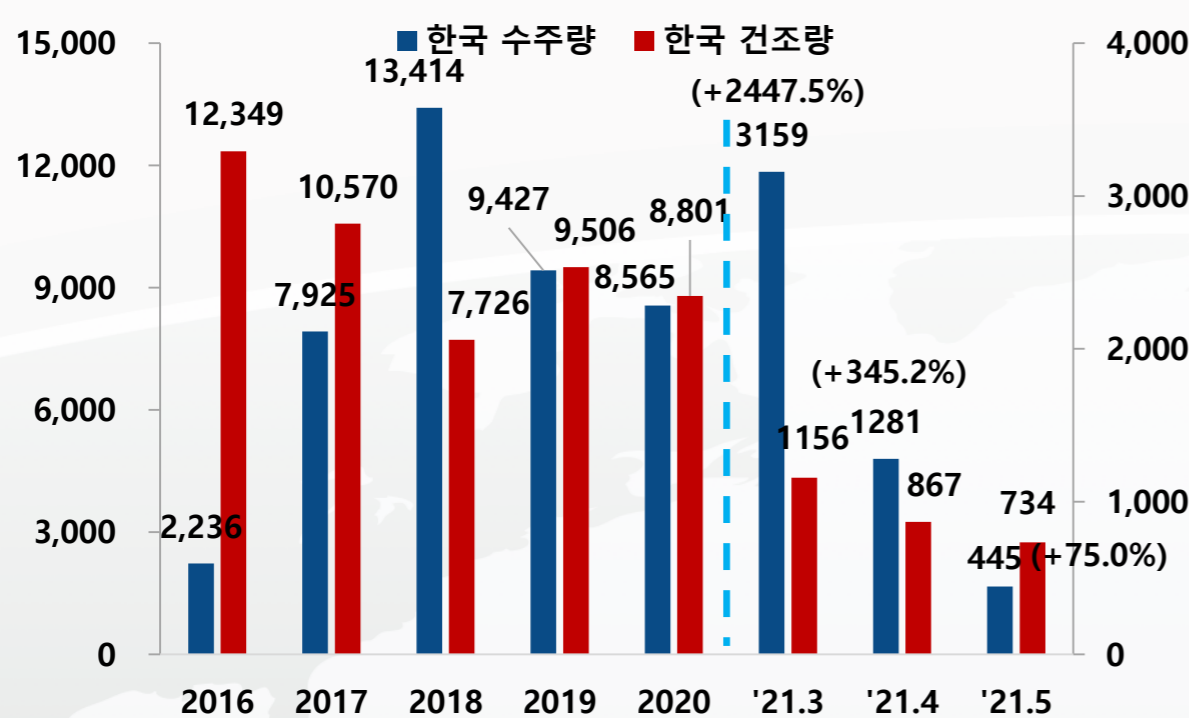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■ 5월 수주는 다소 둔화

- 5월 시황은 세계 발주량, 한국 수주량 4월까지의 호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춤한 양상
 - 5월 세계발주량은 전년동월 대비 16.0% 증가한 127만CGT, 5월 누적치는 전년동기 대비 162.2% 증가한 1,791만CGT
 - 5월 한국 수주량은 44만CGT(전년동월 대비 75.0%), 누적치는 735만CGT (전년동기 대비 572.2%)
 - 5월 수주액은 31.1억달러 (전년동월 대비 457.8%), 누적 수주액은 189.5억달러(전년동기 대비 650.3%)
 - 5월에는 대형선보다 중형 탱커와 중형 컨테이너선 등 중형급 선박들이 활발하게 수주되었으며, 고가의 FPSO 1기가 수주되어 수주액은 수주량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
- 선박 수출은 '22년까지의 인도 예정 물량 부족 등으로 인해 둔화되며 전년동월 대비 감소
 - 5월 수출액은 13.7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△14.9%), 누적 수출액은 99.1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18.2%)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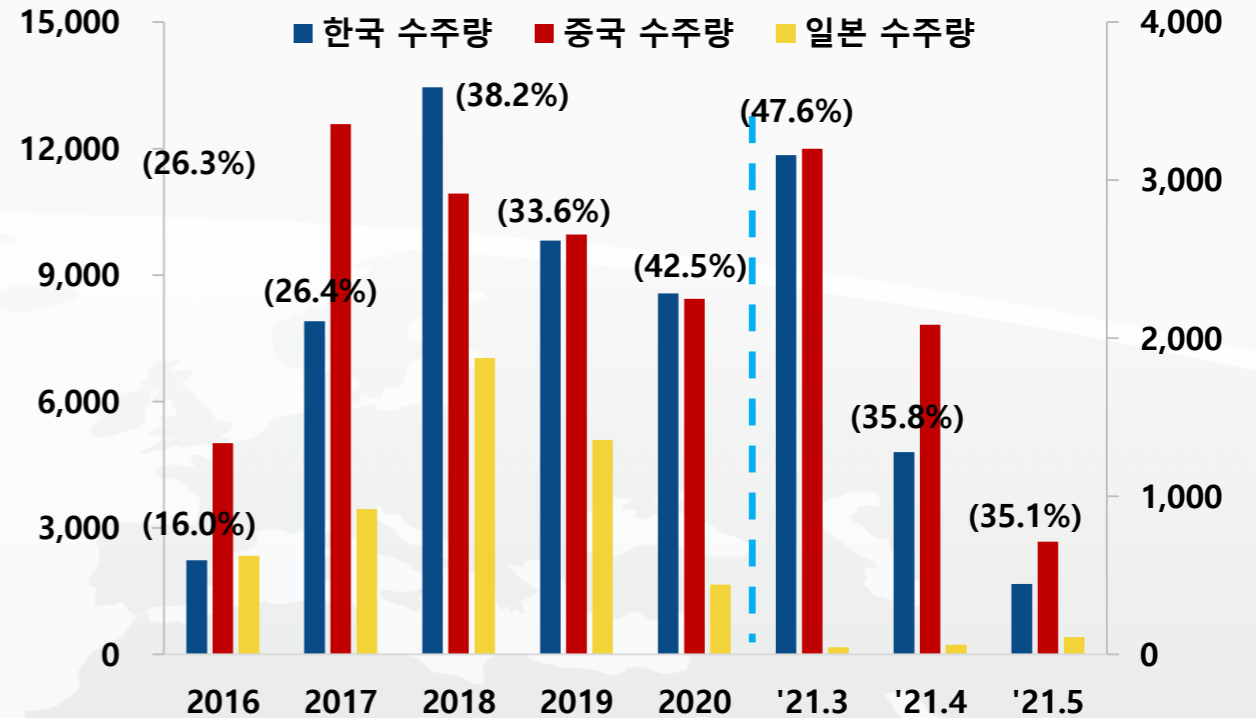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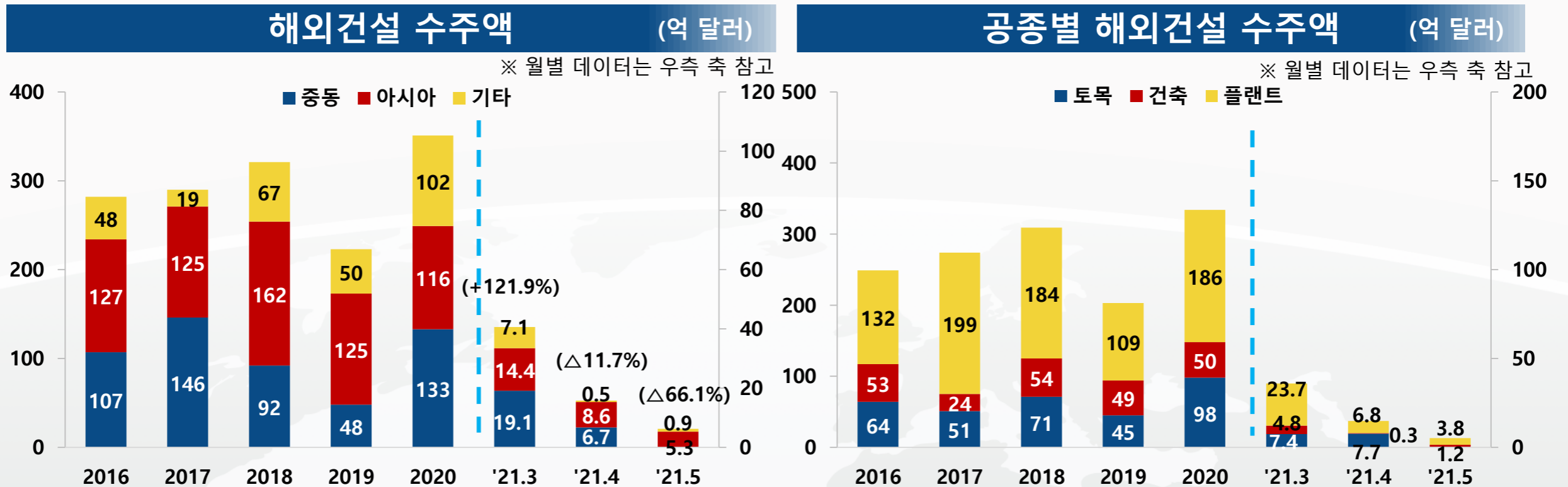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자료 : Clarkson

5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66.1% 감소한 6.2억 달러

- (지역별) 중동 수주가 전무한 가운데, 아시아는 5.3억으로 전년동월 대비 26.4% 감소
 - 5월까지 총 수주액은 101.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1.4% 감소해 코로나19로 미뤄진 발주 기대감 대비 회복세가 더딘 상황
- (공종별) 플랜트 3.8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△75.2%), 토목 0.2억 달러(0%), 건축 1.2억 달러(△33.3%) 기록
- 최근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플랜트 발주 여건 개선 및 2분기 중 1조원 이상의 프로젝트 수주* 예상 등으로 수주액 증가가 기대됐으나, 해외 사업 수주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* UAE 해일&가사, 이라크 바그다드 트레인, 사우디 APC PDH&P, 호주 노스이스트링크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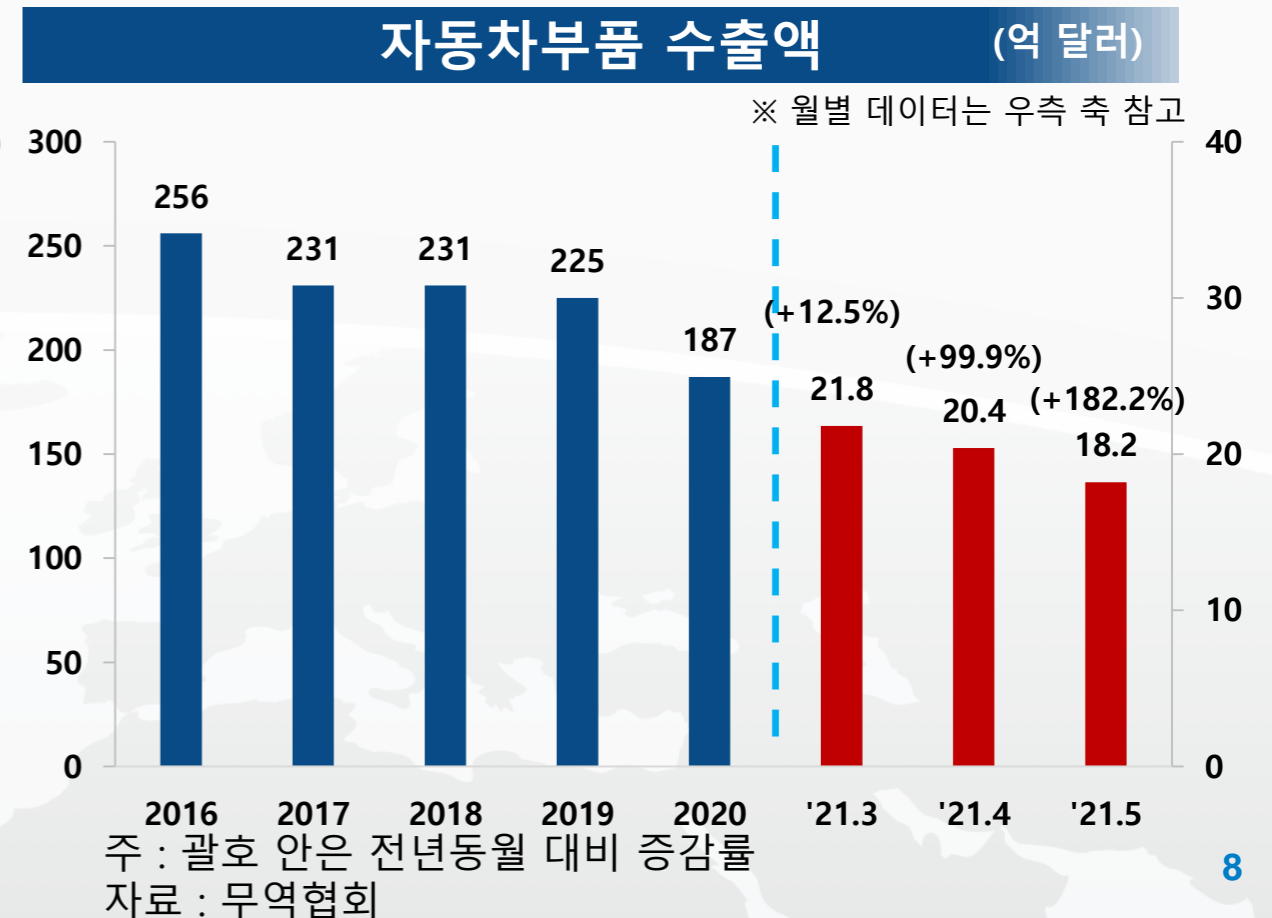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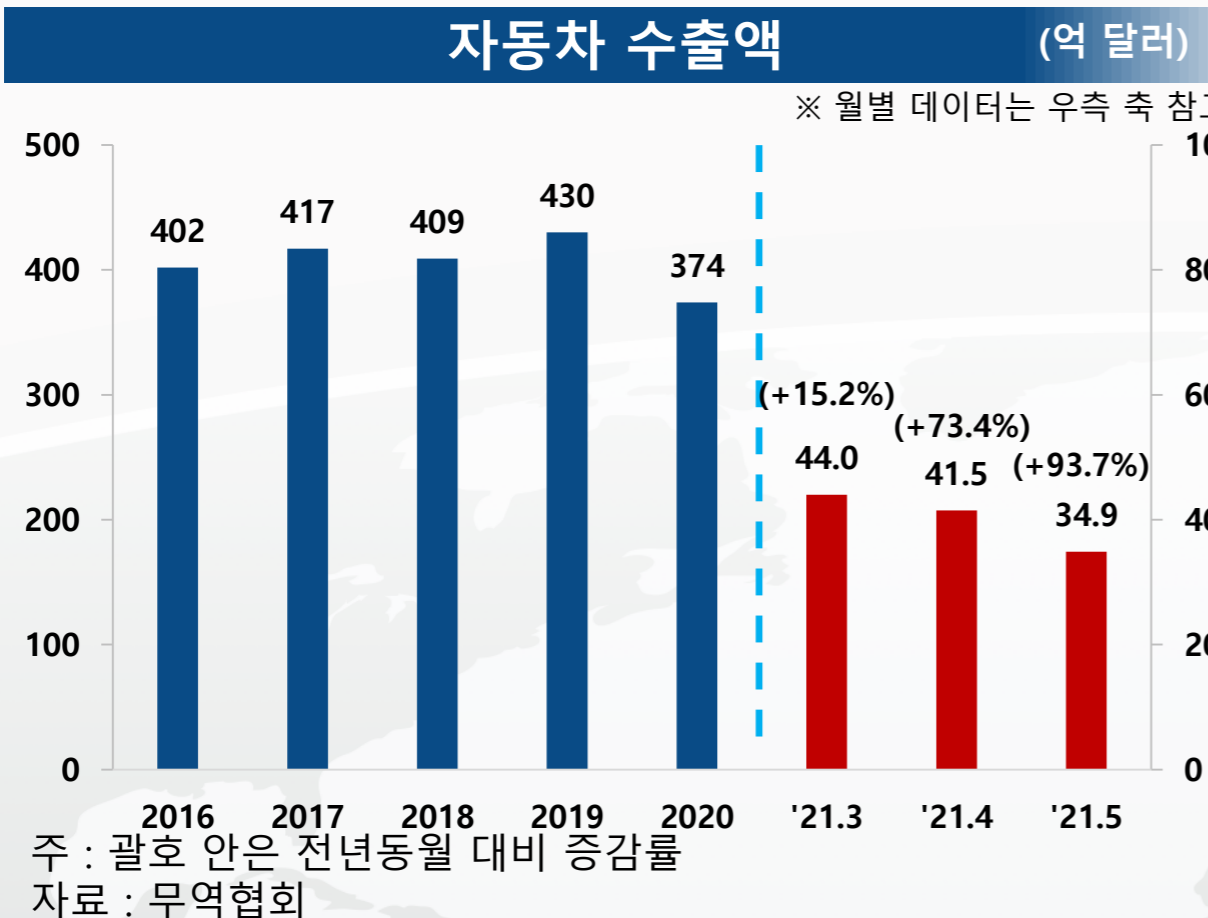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■ 5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34.9억 달러, 18.2억 달러 기록

- **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93.7% 증가했으며, 전기자동차 수출은 4.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.2% 증가**
 -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, SUV와 친환경차 수출 비중 증가로 수출 단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, 미국 및 유럽 지역 수출 성장세 지속으로 4개월 연속 수출액 증가
 - * 친환경차 수출단가(\$): ('20.3) 23,361 → ('21.3) 26,018(+11.4%), SUV 수출단가(\$): ('20.3) 18,629 → ('21.3) 20,631(+10.7%)
- **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82.2% 증가한 18.2억 달러 기록, 전월에 이어 증가세 지속**
 - 미국, 유럽 및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및 SUV 수출 전략 차종의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세도 지속



반도체·디스플레이

■ 5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24.5%, 38.7% 증가

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4.5% 증가한 101.1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수요증가, D램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3.6% 증가한 65.7억 달러 기록

* D램 고정거래가격(달러) : ('20.5~6)3.31 → ('21.1~2)3.13 → ('21.10~12)2.85 → ('21.11~2)3.0 → ('22.4~5)3.8 (D램익스체인지)

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수요 증가*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5.7% 증가한 30.2억 달러 기록

* 국내 파운드리: 퀄컴의 AP(Application Processor), 엔비디아의 GPU(Graphic Processing Unit) 등을 수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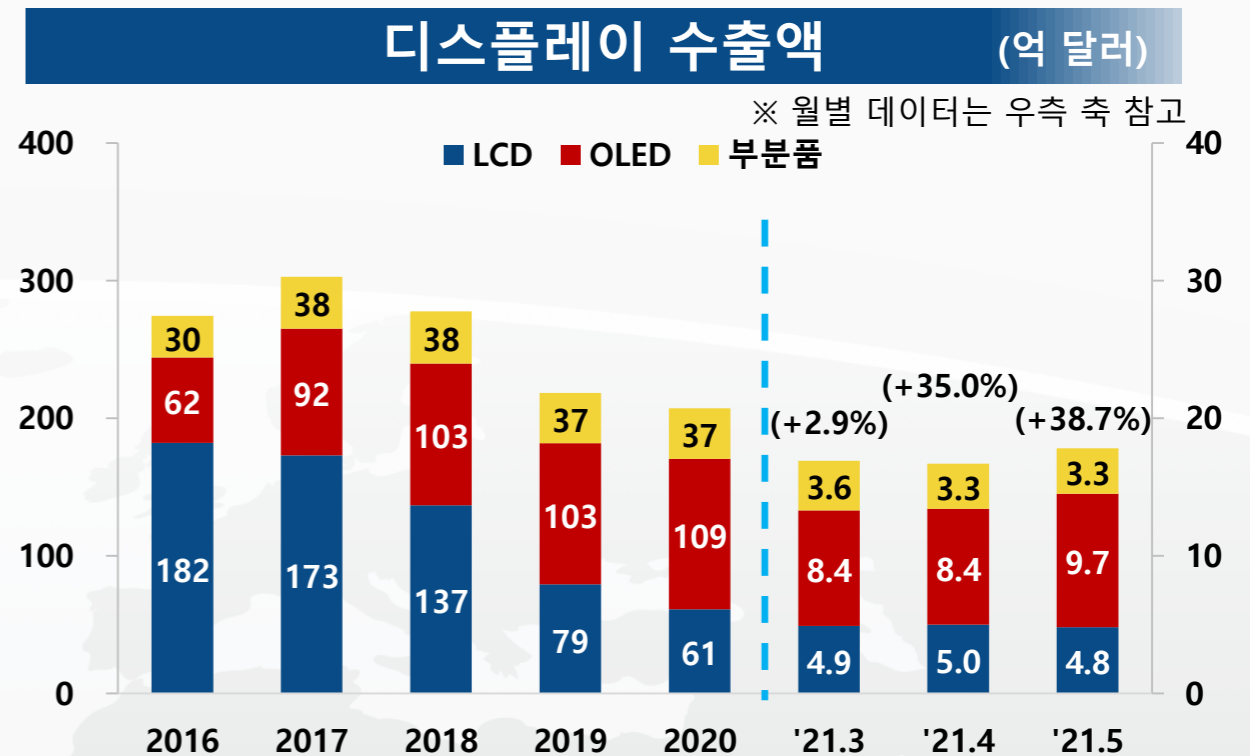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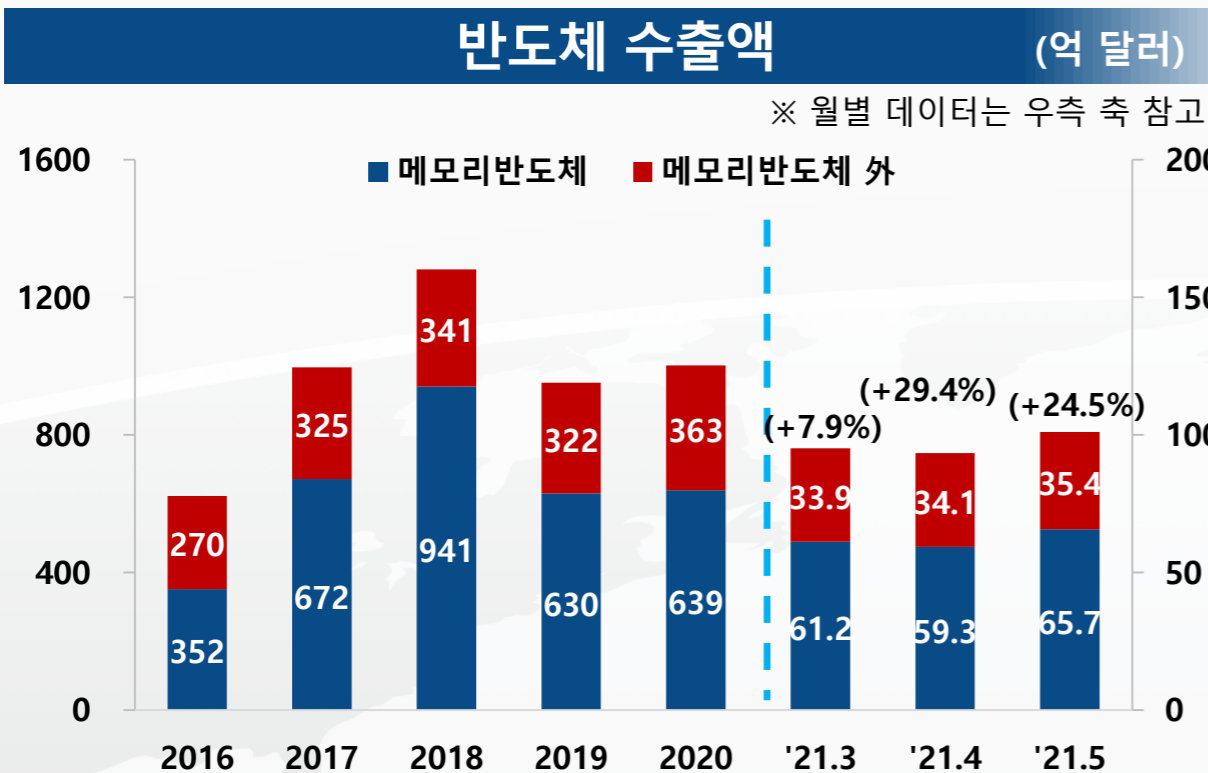
* 시스템반도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: ('20.5)84.6 → ('21.1)76.1 → ('21.3)78.1 → ('22.5)83.6 (한국은행)

•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8.7% 증가한 17.8억 달러로 9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- OLED 수출은 모바일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4.2% 증가한 9.7억 달러 기록

* OLED 수출물가지수(2017.12=100): ('20.5)69.0 → ('21.1)61.7 → ('21.3)54.6 → ('22.5)51.2 (한국은행)

- LCD 수출은 LCD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7.1% 증가한 4.8억 달러 기록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 자료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 자료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